

봉두채(Petasiteae Rhizoma)

- 기원 : 국화과 (Compositae) 머위의 뿌리줄기

- 성미 : 性은 涼하고 味는 苦·辛하다.

- 성상 : 국화과의 머위는 우리나라 제주도, 울릉도, 남부지방, 중부지방의 산야지(山野地) 대개는 인가부근 논둑이나 밭둑 등의 습지에 자생하고 재배도 합니다. 다년생초본이며 높이 40cm안팎이고 지하경이 사방으로 뻗으면서 번식하며 이른 봄에 높이 5~40cm정도의 화경이 나오고 평행한 맥이 있는 포가 화경에서 호생합니다. 근생엽은 엽병이 길며 심장상 원형이고 지름 15~30cm로 표면에 꼬부라진 털과 뒷면에 거미줄같은 털이 있으나 없어지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치아상의 톱니가 있습니다. 엽병은 길이 60cm지름 1cm정도로 자라고 윗부분에 홈이 생기며 녹색이지만 밑 부분은 자줏빛이 돕니다. 3~4월에 꽃이 피며 수꽃은 황백색이고 암꽃은 백색이며 지름 7~10mm로서 산방화서에 촘촘히 달리고 포가 밑 부분을 둘러싸며 화경은 길이 1~2.5cm입니다. 총포는 통형이고 길이 6mm지름 7~8mm이며 포편은 2줄로 배열되고 편평한 맥이 있으며 털이 없고 양성의 소화는 모두 결실하지 않으며 응화서의 암꽃이 열매를 맺고 자화서는 양성화서와 같으나 꽃이 핀 다음 길이 70cm정도로 길어져서 총상으로 됩니다.

- 성분 : Petasin, carene, thymolmethylether, eremophilen, furanoeremophilane, petasin50~55%등이 함유

- 약리 작용 및 용도 : 해표거어, 소종지통 / 해독하고 어혈을 없앤다. 편도선염, 응종정독, 독사에 물린 상처에 쓰는 약재

